

-(이)라고 하다

~라고 하다, ~라고 부르다

이름이나 용어를 소개합니다. 무언가가 무엇이라고 불리는지 말할 때 쓰는 형태이며, 더 넓은 간접 화법 체계로 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.

■ 결합 방법

명사 종류	형태	예
받침 있음	-이라고 하다	김밥이라고 해요
받침 없음	-라고 하다	김치라고 해요
질문	뭐라고 해요?	한국어로 뭐라고 해요?
격식 있는 자기소개	-(이)라고 합니다	마이클이라고 합니다
무언가를 부를 때	-(이)라고 부르다	친구들은 저를 마이크라고 불러요
평서문 전달	-(느)ㄴ다고 하다	간다고 해요

■ 언제 쓰나요

명사가 받침으로 끝나면 -이라고를 씁니다: 김밥이라고 해요. 명사가 모음으로 끝나면 -라고를 씁니다: 김치라고 해요. 이미 알고 있는 이에요 / 예요와 같은 규칙입니다.

가장 흔한 쓰임은 이름을 말하는 것입니다. 자기소개의 제 이름은 마이클이라고 합니다처럼 쓰거나, 낯선 단어를 설명할 때 씁니다: 이 음식을 한국어로 뭐라고 해요?

구조적으로는 한국어 간접 화법의 명사 쪽에 해당합니다. 평서문은 -(느)ㄴ다고 하다, 의문문은 -(으)냐고 하다는 식이며, 이 체계는 2급에서 본격적으로 배웁니다. 이것을 먼저 익혀 두면 나머지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.

■ 예문

- 1 저는 장노을이라고 합니다.
- 2 이걸 한국어로 뭐라고 해요?
- 3 친구가 내일 온다고 했어요.
- 4 날씨가 좋다고 해요.
- 5 언제 오냐고 물어봤어요.
- 6 빨리 오라고 했어요.

■ 비교

이에요 / 예요

이에요는 무엇인지 밝히고, -(이)라고 하다는 이름을 말합니다. 자기소개에서 라고 합니다를 쓰면 입니다보다 조금 더 격식 있고 겸손하게 들립니다.

저는 마이클이에요. (나는 마이클이다) / 마이클이라고 합니다. (마이클이라고 불린다)

-(이)라고 부르다

하다는 일반적으로 무엇이라고 불리는지를 말하고, 부르다는 누가 부르는지를 나타냅니다. 부르는 사람이 중요할 때는 부르다를 씁니다.

이걸 김밥이라고 해요. / 친구들은 저를 마이크라고 불러요.

-(느)ㄴ다고 하다

같은 체계의 동사 쪽으로, 누군가가 한 말을 전할 때 씁니다. -(이)라고 하다는 명사를, -(느)ㄴ다고 하다는 문장을 전합니다.

김치라고 해요. (김치라고 부르다) / 간다고 해요. (간다고 말한다)

■ 주의

✗ 이걸 김밥라고 해요.

○ 이걸 김밥이라고 해요.

김밥은 받침으로 끝나므로 이라고를 씁니다. 이에요 / 예요와 같은 규칙입니다.

✗ 제 이름은 마이클라고 합니다.

○ 제 이름은 마이클이라고 합니다.

마이클은 ㄹ로 끝나는데, 이것도 받침이므로 이라고를 씁니다.

✗ 이 음식이 뭐라고 해요?

○ 이 음식을 뭐라고 해요?

이름이 붙는 대상은 하다는 목적어이므로 이/가가 아니라 을/를을 씁니다.